



2019년 10월 넷째주

## 해외 ICT 표준화 동향

### 목차

**본문** 19.10.14 '세계 표준의 날' 테마- 비디오 표준으로 글로벌 무대를 만들다

19.09.25 중국의 지역표준 관리조치 초안 관련, 미국 ANSI의 입장

**단신** 19.09.27 유럽 CEN, ASTM International과 기술 협력 체결

19.10.11 독일 DIN, 무역과 국제표준화에 대한 세미나 개최

### ※ 게시물 보기

TTA 홈페이지 ▷ 자료마당 ▷ TTA 간행물 ▷ 표준화 이슈 및 해외 동향

# 1. '세계 표준의 날' 테마 - 비디오 표준으로 글로벌 무대를 만든다

World Standards Day

---

보도날짜 : 19.10.14

출처 : <https://www.worldstandardscooperation.org/world-standards-day/>

- 올해 세계 표준의 날은 “비디오 표준으로 글로벌 무대를 만든다”를 주제로 함
  - 매년 10월 14일 IEC, ISO, ITU 회원국은 세계 표준의 날을 자축하며, 국제표준을 개발하는 전세계 수천명의 전문가들의 협력에 경의를 표함
- 비디오 기술의 발전은 세상을 변화시키며, 엔터테인먼트의 혁명과 전 세계의 친구, 가족간 연결을 가능하게 함. 특히 풍부한 의사소통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 및 의료 분야를 크게 개선시킴
  - 수십 년간의 혁신을 거쳐 비디오 품질은 크게 향상되었음. 또한, 비디오의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생생한 동영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됨. 이러한 품질 향상과 접근성은 모두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 IEC, ISO, ITU가 공동으로 표준화한 국제표준인 비디오압축알고리즘은 이미 2차례에 걸쳐 에미상(Primetime Emmy Award)을 수상한 바 있음. 이는 표준이 비디오 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중심적으로 기능함을 인정받은 것임
  - 국제표준은 강력한 압축 기능을 필요로 하는 업계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차세대 기술로의 전환을 원활하게 하여 업계는 투자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음
  -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표준이 있다는 것은 사용 중인 장치에 관계없이 인코딩 된 비디오를 한 장치에서 다른 장치로 디코딩 할 수 있음을 의미함. 이는 새로운 비디오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 투자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여 시장 성장을 돕고 규모의 경제를 이끌 수 있음
- 금번 세계 표준의 날을 맞아 개최한 #futurevideo 콘테스트에서는 비디오의 미래를 주제로 제작된 영상들에 대한 공개투표가 이뤄졌으며, 최종 1명의 우승자와 3명의 입상자를 시상하였음



### 3. 19.10.11. 독일 DIN, 무역과 국제표준화에 대한 세미나 개최

▷ 원문제목 : DIN event on "Trade and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in Brussels

▷ 원문링크 : <https://www.din.de/en/din-and-our-partners/press/press-releases/din-event-on-trade-and-international-standardization-in-brussels-483978>

■ 독일표준협회인 DIN은 무역과 국제표준화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 유럽의회, 집행위원회, 협회 등 60여명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

■ 발표자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유럽의회 대표단 의장) 유럽연합의 대외 무역 정책에서 표준화의 본질적인 역할을 강조. 특히 중국과 미국은 기술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활용 중. EU 집행위원회에 표준화를 위한 특별 대표 구성을 요구
- (DIN 이사회 의장) CEN 이사회 부의장이자 중국TF 의장을 수행 중이며, 유럽은 중국 국가표준화위원회(SAC)에 자문을 하며 잘 알려져 있음. 금번 IEC 상하이 총회(10/21~25)에서 유럽 표준화 시스템에 대한 교류 기회를 가질 예정
- (밀레사의 디지털규제담당) 기업 입장에서 국제표준의 장점을 소개. 중국, 호주, 뉴질랜드 같은 국가는 가정용 냉장고에 대한 테스트방법이 법으로 통합되어 있어, 제품 테스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새로운 입법 체제에서 사이버보안법이 포함되지 못하는 등 유럽연합 공식 저널에 조화표준 게재가 지연되는 것은 기업에게 고민거리가 될 것임. 유럽이 '표준 세터'의 위치에서 단순한 '표준 소비자'로 떨어질 위험이 있음